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하는

우리나라 인구 문제

- 편집실 -

최근 우리는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살고 있다. 출산·육아·고용 등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적인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인구, 함께 풀어야 할 과제

이미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긴박한 현실에 놓여있다.

인구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단순하지 않으며 경제적인 문제로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는 베이비붐을 기대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되었다. 저출산의 문제도 개인적인 가치관, 생활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선진국 또한 출생률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고령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인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결국 국가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가 된다.

합계출산율/인구고령화

인구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살펴보

기 위해서 인구에 대한 통계자료를 접하게 되는데 출산과 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용어를 이해하면 인구의 추이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합계 출산율 : 합계출산율이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여성 한명이 평생의 가임기간 동안 출산하는 평균자녀수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4년에 선진국의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기록한 이후 합계출산율이 갈수록 급격히 낮아져 2002년에는 1.17명으로 나타나 OECD 국가의 평균합계출산율인 1.58명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인구 고령화 : UN이 정의한 것을 살펴보면 고령화사회는 고령인구비율이 7% 이상인 사회이고, 고령사회는 고령인구비율이 14% 이상인 사회이고, 초고령사회는 고령인구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11월 기준 65세 이상 노



인인구가 339만 여명에 달해 전체 인구(4천5백 98만명)의 7.2%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고령인구 비중은 1980년 3.9%, 1985년 4.3%, 1990년 5.2%, 1995년 5.9%, 2000년 7.3%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최근 5년간은 고령화 진행속도가 매우 빨라졌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2019년에 65세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15%를 돌파,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이러한 인구고령화는 많은 경제적 문제를 갖게 한다.

먼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의 노인부양비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향후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며 연금 및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점진적으로

세계 각국은 빠른 고령화와 장기적인 불황이 맞물려 노인인구에 대한 부담은 오랜기간 동안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를 우려하여 유럽각국에서는 퇴직연령 연장, 연금축소, 이민 확대, 출생 장려 등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산 장려 정책이나 육아 여성의 고용보장 등은 사회정책적인 비용의 손실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의 문제가 시급하지만 당장 대체인구수인 2.1명으로 출산율을 높히기는 어렵다. 점진적으로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산, 육아, 고용 등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정책적인 대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